

도내 건설인들, 건설의날 기념 포상

건협 전북도회, 호원건설 이윤범 대표 산업포장 수상 영예 부강건설 양선기·군장종합건설 채이석 대표 국토부장관상 수상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정대영)는 21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거행된 '2018년 건설의 날 기념식'에서 전북도회(주)호원건설 이윤범 대표이사가



이윤범 대표



양선기 대표



채이석 대표

산업포장 수상을 (유)부강건설 양선기 대표이사, (주)군장종합건설 채이석 대표가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각각 수상하는 영예를 얻었다고 밝혔다.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감사를 맡고 있는 (주)호원건설 이윤범 대표이사는 (화합·성실·창조) 사훈을 실현하고자 고객만족과 안전을 최우선 하

는 공사수행과 노사간 화합을 조성 헌신적인 사회공헌사업과 지역인재육성에 앞장서 건설업 이미지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자비를 들여 장학재단법인 호원을 설립, 군산 평화 중·고등학교를 후원, 어려운 사람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또한, 불우이웃 돌봄 사업에 앞장서는 아너소사이터티회원(사회복지 공동 모금회 1억이상 기부자)으로서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하는 세상을 만들고자 노력하는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산업포장을 수상했다.

이윤범 대표는 그동안 공공공사 성실시공 공로로 '시공능력 우수건설업체 선정'과 다수의 표창을 수상해나 있으며 민간분야에서는 건축문화상 수상 등 우수 품질시공을 검증 받았다.

아울러 전기 및 소방공사에 진출하여 사업의 다각화와 기술능력을 인정받아 건설업계의 모범 사례가 되고 있다.

(유)부강건설 양선기 대표이사는 성실시공과 창의적 혁신을 통한 건설업

경쟁력 강화와 나눔을 통해 헌신적 사회봉사 와 국민편익사업 성실시공으로 지역산업발전에 기여하고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 받았다.

(주)군장종합건설 채이석 대표이사는 실무경험과 관리능력을 겸비한 건설인으로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기업가 정신으로 건설안전과, 품질향상, 지역 건설 활성화와 발전에 기여한 공로 등을 인정받아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정대영회장은 "산업포장과 2명의 건설교통부장관상 수상은 경사스런 일"이라고 강조하며 수상자들과 축하했다.

한편, 정부에서는 해마다 건설의 날에 대한민국의 건설산업발전에 공헌한 건설인들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 유공자를 선정하여 포상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전북은행 'JB카드 썸머 페스티벌' 행사

경품 추첨 · 워터파크 할인 등 다양한 혜택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여름 휴가 시즌을 앞두고 경품 추첨과 워터파크 할인, 국내 여행 교통비 캐시백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JB카드 썸머 페스티벌' 행사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오는 22일부터 8월 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경품 추첨 행사는 기간 내 누적 이용액 10만원 이상 이용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JB개인카드 이용액이 10만원씩 누적될 때마다 당첨 기회가 추가로 부여되며, 전북은행 개인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회원이라면 누구든지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일주일 1만원권(매달 50명·총 150명)을 경품으로 지급한다.

또 JB개인카드 KTX 및 SRT를 처음 결제하는 고객이 누적 5만원 이상 결제시 3000원의 캐시백을, 서울과 부산·경주·인천 시티 투어버스를 건별 1만원 이상 결제한 고객에게는 결제액의 10%를 월 5000원까지 환급해준다.

이와 함께 JB개인카드를 지참해 대령리조트 변산 아쿠아 월드, 나주 흥중 워터 파크, 화순 금호 아쿠아 월드, 여수 디오션 워터 파크 매표소를 방문하면 최대 38%까지 현장 할인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은행 콜센터(1588-4477) 및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김영태 기자

'나홀로 가구' 다섯 집 중 두 집은 '백수'

1인 가구 비중 28.7%... "직장 때문에 혼자산다" 男女 임금 '200~300만원 미만' 최다... 주당 평균 42.8시간 일해

혼자 사는 '1인 가구' 다섯 집 중 두 집이 일자리가 없는 '백수'였다. 통계청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부가항목)-맞벌이 가구 및 1인가구 고용현황'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1인 가구는 561만3000가구로 1년 전보다 17만9000가구(3.3%) 증가했다.

전체 가구(1959만 가구)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0.6%포인트 상승한 28.7%로 집계됐다. 세 집 중 한 집이 '나홀로족(族)'인 것이다.

취업자인 1인 가구는 1년 전보다 14만3000가구(4.3%) 늘어난 343만1000가구였다.

전체 1인 가구 중 61.1%만이 일자리를 가진 셈이다. 1인 가구 다섯 집 중 두 집은 일자리도 없는데 혼자 전월세 부담을 안고 살아간다 얘기가.

다만 이 비중은 관련 통계가 처음 작성된 2015년(60.6%)과 전년(60.5%)보다는 다소 나아졌다.

1인 가구에서 고령층 비중이 높아 일하기 어려운 가구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취업자인 1인 가구를 연령별로 보면 50~64세가 26.5%(90만8000가구)로 가장 많았고 30~39세 23.7%(81만5000가구), 40~49세 21.0%(72만 가구), 15~29세 18.8%(64만4000가구), 65세 이상 10.1%(34만5000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타났다.

전년 대비 증가 폭은 15~29세가 10.7%로 가장 컸고, 30~39세(0.9%)와 65세 이상(1.6%)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직장 때문에 혼자 사는 남성이 여성보다 많았다. 취업 남성(198만5000가구·57.9%)의 1인 가구 비중이 여성(144만6000가구·42.1%)보다 15.8%포인트 높았다.

그러나 1년 전과 비교하면 취업여성 1인 가구의 증가 폭이 4.5%로 남성(4.2%)보다 컸다. 여성의 평균 초혼 연령이 높아지고 저출산·이혼 증가 등의 이유로 여성 1인 가구가 늘어난 데다 여성의 경제 활동도 활발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건설업(11.0%), 광·제조업(7.3%),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4.6%) 순으로 컸고 농림어업(-10.6%)만 유일하게 감소했다.

/김영태 기자

생산자물가 3년7개월來 최고... 유가 상승·가스 요금 영향

국제유가 상승에 산업용 도시가스 요금 등 오른 영향

'농산물값' 하락으로 농림수산물은 전월比 0.9% 하락

지난달 생산자물가가 5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국제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물가지수는 3년7개월만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5월 생산

자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는 104.40(2010=100 기준)으로 전월보다 0.2% 올라갔다. 이는 지난 2014년 10월(104.45) 이후 3년7개월만에 최고치로 지난 1월부터 5개월째

오른 것이다. 지난해 같은달에 비해서는 2.2% 뛰어올라 지난 2016년 11월 이후 19개월째 상승세를 보였다.

생산자물가는 국내 생산자가 시장에 공급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나타내는 지표로 소비자물가를 선행한다.

최근 생산자물가 오름세는 국제유가 상승세가 이끌고 있다. 지난달 석탄

및 석유제품(5.3%), 화학제품(0.6%) 등이 오르면서 공산품 전체 물가가 0.4% 올라갔다. 지난달 두바이유의 월평균 가격은 배럴당 74.1달러로 전월(69.27달러)보다 9.0% 상승했다.

산업용 도시가스 요금의 인상 여파도 있었다. 전력·가스·수도의 물가지수는 106.43으로 전월대비 0.3% 올라갔다. 서비스 물가도 음식점 및 숙박(0.4%) 등이 오른 영향으로 전월대비 0.1%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영태 기자

한전 전북본부, 사회적기업과 업무 협약

한전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직무대행 이성국)는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해 21일 사회적기업인 (유)맞디자인(김치 담금 전문업체), (유)함께하는 사람들(한우 수거 전문 업체)과 함께 상호 교류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 후 한전 전북지역본부 봉사단원들은 사회적 기업인 (유)맞디자인 종사원들과 합동으로 계절 김치(열무 김치 300kg, 백 김치 300kg)를 담아 관내 아동 복지센터(2곳) 및 노인 복지관(2곳) 등의 저소득층에게 전달했다.

또한 사우물 및 고객 센터, 지회사인 검침사, KDN 직원들을 대상으로 1주일간의 한우 수거 기간을 별도로 운영하여 수거된 현우들을 세탁 후 분류 작업을 한 후 (유)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행사도 가졌다.

한전 관계자는 "나눔 경영과 일자리 창출의 대표적인 기업인 사회적기업들과의 업무 협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역사회 활성화 및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산업부, '청년 일자리 창출' 감면제도 신청 접수

6월말부터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고용 기술료 감면제도'가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채용할 경우, 2년간 인건비의 50%만큼 기술료를 감면하는 '청년고용 기술료 감면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술료 감면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은 해당 연구개발(R&D)과제의 전담기관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원활히 신청할 수 있도록 전용 시스템인 산

업기술 연구개발(R&D)정보 포털을 구축했다.

산업부는 청년고용 기술료 감면 제도로 올해에만 약 498개의 청년 일자리가 신규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감대자 산업기술정책과장은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기술혁신의 주체인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사람 중심의 R&D를 정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영태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7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vcs.or.kr *전자우편 : jvcs@hanmail.net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